2015년11월12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⑤	②	②	③	①	⑤	①	④	②	⑤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④	②	③	⑤	①	①	④	④	④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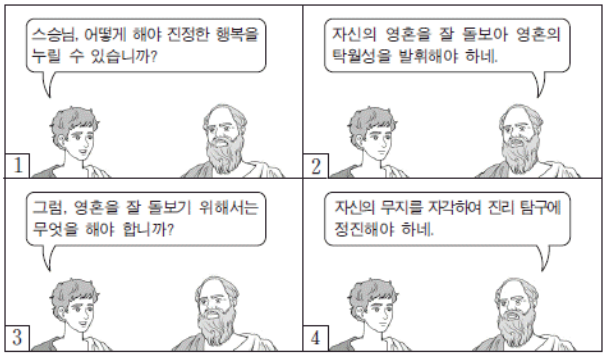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리가 상대적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② 행복이 지식과 무관함을 인식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③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중시하고 사회적 공감을 추구해야 한다.

④ 인간이 만물의 척도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

⑤ 참된 앎이 덕 그 자체임을 깨닫고 항상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아름다운 국가'는 가장 완벽한 수호자들이 통치한다. 이들은 모든 지식 중 지혜라고 불리어 마땅한 선(善)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국가의 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 을: 진리의 빛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광을 먼저 비춘다. 따라서 산업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이 무지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뉴 하모니'를 건설해야 한다.

① 갑: 모든 계급의 철폐가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통치한다.

② 갑: 구성원 모두 주어진 역할에 따라 맡은 바 직분을 다한다.

③ 을: 사유 재산이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는다.

④ 을: 이기적인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자연권을 완전히 보장받는다.

⑤ 갑, 을: 모든 구성원이 생산수단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공유한다.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 최고선인 행복은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며, 덕은 영혼의 요소에 따라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으로 나뉜다.
> ○ 감정이나 행위에 있어서 덕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그러나 심술이나 파렴치, 절도나 살인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① 어떤 감정이나 행위들은 중용의 상태를 가질 수 없다.

② 덕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욕구가 이성에 의해 인도되어야 품성의 덕을 갖출 수 있다.

④ 중용의 덕을 함양해야 삶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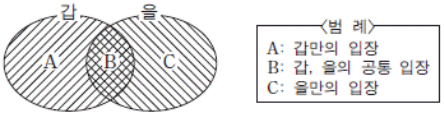
⑤ 도덕판단의 기초인 실천적 지혜는 품성의 덕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4.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삶[生]도 바라고 의(義)도 바라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으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한 그릇의 밥과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더라도, 모욕하면서 주면 길 가던 사람도 받지 않는다. 현자(賢者)는 이 인의의 본심을 잃지 않을 뿐이다.
> 을: 예(禮)는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스승[師]은 예를 바르게 하는 자이다. 예가 없으면 어떻게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승이 없다면 어떻게 예가 옳은지 알겠는가? 성정을 바로잡아, 정감이 예를 편안히 여기고, 지혜가 스승과 같아진다면 성인(聖人)일 것이다.

(나)



① A : 군주는 인의의 도덕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② A : 본래 마음 밖에 있는 의를 실천하여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③ B : 성인과 일반 백성은 모두 동일한 본성[性]을 갖고 태어난다.

④ C : 하늘을 도덕의 근거로 삼아 사회 질서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⑤ C : 식욕(食欲)과 같이 타고난 자연스러운 욕구를 다스려야 한다.

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나는 오직 내가 생각하는 존재, 즉 정신이나 이성으로서의 존재라는 말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는 이제 드디어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바로 생각하는 존재였다.
> 을: 나는 언제나 이른바 '나 자신'이라는 것의 심층에 들어가 보면 개별적 지각들, 즉 사랑과 미움, 고통과 쾌감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여기서 이성은 나의 행동과 정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

〈보 기〉

ㄱ. 갑은 경험과 관찰로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인과 법칙이 심리적 성향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제1 원리를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으로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사유하는 자아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고 본다.

❶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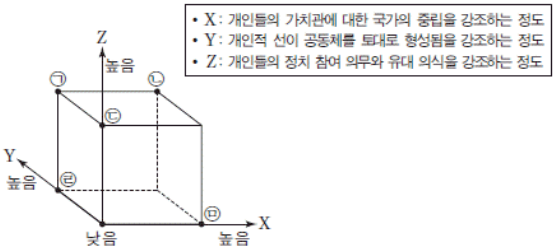
6.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이(理)는 지극히 허(虛)하면서도 지극히 실(實)하다. 그 본체는 무위(無爲)하지만 작용[用]을 갖추고 있어 만물에 드러난다. 솔개가 나는 것은 기(氣)이지만, 날게 하는 것은 이(理)의 묘용(妙用) 아님이 없다.
> 을: 이는 형이상자(形而上者), 기는 형이하자(形而下者)이다. 이는 기 아니면 있을 곳이 없고, 기는 이 아니면 근거가 없다.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어, 오직 기가 발함에 이가 타고, 이는 통(通)하지만 기는 국한[局]된다.
> 병: 이는 마음[心]이고 성(性)이다. 기를 벗어나 성을 말할 수 없다. 사람 마음에서 생동하는 이치는 어둡지 않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양지(良知)이다. 선(善)은 저울의 중심이 물건에 따라 바뀌듯이 미리 정할 수 없다.

① 갑은 시비(是非)를 분별하는 마음을 이가 발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이가 기와 결합해야만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③ 병은 진리(眞理)를 마음이 상황에 맞게 드러내는 이치로 본다.
④ 갑과 을은 치우친 기질 속에도 이가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❺ 을과 병은 기가 이보다 먼저 발하여 모든 감정이 드러난다고 본다.

7.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ㄱ)~(ㅁ)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자유는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개인은 불가침적인 권리를 지니므로 공동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누구도 타인을 강제할 수 없다. 도덕과 정치를 결합하려는 시도는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부당하다.
> (나) 자유는 '함께하는 자치'에 달려 있다. 자치를 공유하는 것은 공동선에 대해 동료 시민들과 숙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바람직한 품성을 습득해야 한다. 자치에 필수적인 품성을 길러 내는 것이 정치이다.



❶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8. 사회사상 (가), (나)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일당 독재와 무제한적 수탈이 자행되는 모든 곳에서는 민중의 생존과 도덕 수준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UN 인권선언을 준수하면서, 사적 이윤보다 민중의 공익을 강화하는 제도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나) 투자와 구매의 저하는 풍요 속의 빈곤과 실업 증가를 유발한다. 이는 악의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인간의 도덕성에 책임을 돌릴 수 없고,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도 믿을 수 없으므로 대규모 공공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① 전면적 계획경제를 기초로 하되 부분적 사유도 인정해야 한다.
②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③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를 다른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
❹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⑤ 공익 증진을 위해 자유 경쟁을 통한 사익 추구를 금지해야 한다.

9.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선의지에 스스로의 의도를 성취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 해도, 또한 이 의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는 것이 아예 없다 해도, 선의지는 마치 보석과도 같이 그 자체로 빛나며 스스로의 모든 가치를 그 자체에 간직한다.
> 을: 강렬하고 지속적이며 확실하고 근접해 있으며 생산적이고 순수한 것. 쾌락과 고통에도 이와 같은 성향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이 쾌락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법. 사적이라면 당신의 목표로 삼고, 공적이라면 널리 전파하라.

① 갑: 선의지는 인간의 일반적인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해야 한다.

❷ 갑: 무조건적 선은 이성적 존재의 의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③ 을: 개인이 갖는 쾌락과 사회 전체의 선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④ 을: 고급 쾌락들을 경험한 전문가의 식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⑤ 갑, 을: 행위자의 품성을 배제하고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없다.

10. 다음 동양 사상가의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흰기러기는 하얗게 되겠다고 매일 목욕하지 않고, 까마귀는 까맣게 되겠다고 매일 먹물을 칠하지 않는다. 흑백의 우열은 논변할 가치가 없고, 명예를 다툰다고 위신이 서는 것도 아니다. 샘이 말라 뭍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물고기들은 거품으로 서로를 적셔 주면서 삶을 도모하지만, 이는 강과 호수 안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는 것만 못하다.

〈보 기〉

ㄱ. 인간과 동물은 모두가 자신의 덕(德)을 가지고 태어난다.
ㄴ. 누구나 좌망을 통해 도(道)를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ㄷ. 자연적 본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양을 해야 한다.
ㄹ.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 간에 귀천(貴賤)의 구분이 생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❺ ㄱ, ㄷ, ㄹ

11.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갑: 마음의 본체는 성(性)이고,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 생각이 일어나면서 바르지 않음이 생긴다. 생각이 머무는 곳이 물(物)이고, 바로잡는 것이 격(格)이다.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옳은 생각을 행해야 마음의 본체가 회복된다.
> 을: 마음은 성과 정(情)을 통괄한다. 하늘이 만물을 생성함에 기(氣)로 형체를 만들고 성 또한 부여하였다. 기질의 차이로 누구나 성이 고유함을 알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窮理]해야 앎을 지극히 할 수 있다.

① 도덕적 행위[궈]는 이치를 탐구해야만 가능한 것인가?

② 이치[理]는 마음이 인식해야 하는 객관적인 대상인가?

③ 사욕을 제거하고 본성을 함양해 나가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❹ 도덕적 사고와 행위는 천리인 참된 앎[良知]이 발현된 것인가?

⑤ 도덕적 앎[知]을 얻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다고 할 수 있는가?

1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마음의 본체는 성(性)이고,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 생각이 일어나면서 바르지 않음이 생긴다. 생각이 머무는 곳이 물(物)이고, 바로잡는 것이 격(格)이다.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옳은 생각을 행해야 마음의 본체가 회복된다.
> 을: 마음은 성과 정(情)을 통괄한다. 하늘이 만물을 생성함에 기(氣)로 형체를 만들고 성 또한 부여하였다. 기질의 차이로 누구나 성이 고유함을 알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窮理]해야 앎을 지극히 할 수 있다.

> 성(性)은 옳음[義]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할 때 자주의 권한[自主之權]을 주어,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였다. 선과 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고정되지 않는 것은 마음의 권한이니, 금수(禽獸)의 고정된 마음과 다르다.

〈보 기〉

ㄱ. 예(禮)는 공경하는 행위에서 형성되는 덕임을 간과한다.
ㄴ. 기질(氣質)의 욕구를 좇으면서 악이 쌓이게 됨을 간과한다.
ㄷ. 인간의 마음[心]이 도덕 행위를 주재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ㄹ. 인간만이 덕을 좋아하는 성향[嗜好]인 본성이 있음을 간과한다.

① ㄱ, ㄴ

❷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특정 지식이 제한된 최초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전체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향상하는 원칙에는 합의한다.
> 을: 일체의 외적 강제력이 배제되고, 상호간 비판에 열려 있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모든 당사자는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① 갑은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가 공정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최초 상황의 개인은 서로의 이익을 공평하게 비교한다고 본다.

❸ 을은 당사자들의 어떠한 주장에도 이의 제기가 허용된다고 본다.

④ 을은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사회적 갈등 해결은 무관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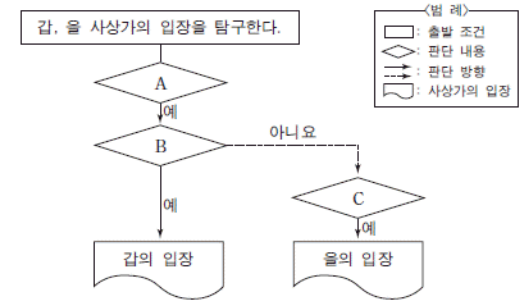
⑤ 갑, 을은 결과의 정당성이 절차의 공정성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본다.

14.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지만, 쾌락 때문에 더 큰 불쾌가 초래될 경우 우리는 그 쾌락을 포기한다. 마찬가지로 고통의 시간 뒤에 더 큰 쾌락이 따를 경우, 우리는 그 고통을 쾌락보다 낫다고 본다.
> 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오직 그대가 할 수 있는 것만 자기 것으로 하고, 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남의 것으로 돌려라. 그러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



① A :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② B : 자기애를 넘어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삶은 바람직한 것인가?

③ B : 평온한 마음을 누리려면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해야 하는가?

④ C : 최고의 선이란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은둔하여 사는 것인가?

❺ C :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해야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15.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아담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하였고, 그의 모든 후손들은 자기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는 서로 대립하며, 악(惡)은 선(善)이 결여된 상태이다.
> 을: 개체만이 실재하며, 보편자는 사물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있은 뒤에 관념으로서 정신 속에서만 성립한다.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가정해야 한다.
> 병: 성서 해석 권한이 오직 교황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권한은 베드로 및 그의 후계자인 교황들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 모두 사제이며, 각자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❶ 갑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보편자는 개별자와는 달리 감각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병은 신의 은총은 오직 교회를 매개로 하여서만 주어진다고 본다.

④ 갑, 을은 병과 달리 신앙을 인간이 홀로 신과 만나는 것이라고 본다.

⑤ 을은 갑, 병과 달리 신의 본질을 이성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1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국가는 인륜적 전체이며, 자유의 현실태이다. 국가는 인간의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정신이다. 인간이 알건 모르건 국가는 모든 개개인을 자신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 을: 국가는 다수의 계약에 의한 결집체이다. 계약은 칼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에 불과하며 어떤 힘도 갖지 못한다. 지상의 신(神)인 국가는 외적의 침입과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❶ 갑은 개인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② 갑은 인륜을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한 합의의 산물이라고 본다.

③ 을은 국가의 성립 이후 구성원들의 이기심이 소멸된다고 본다.

④ 을은 계약 이후에는 도덕규범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국가를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인위적 산물로 본다.

17. (ㄱ)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세계가 정원이라면 국가나 민족은 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꽃인 국가나 민족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세계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족국가의 존립 없이 국가 간의 조화와 공존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는 "이성이 인류의 본성이라면 이성의 법칙도 보편적이며, 우주는 일종의 국가이다. 인류는 하나의 국가공동체의 시민이다. 그 밖에 또 다른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인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① 다른 나라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한다

② 인류 보편적 가치보다 민족의 번영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③ 자연법이 아니라 각 사회의 실정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❹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민족을 토대로 하여 형성됨을 간과한다

⑤ 이성이 세계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본질적 특성임을 간과한다

18.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걸어서 가는 것으로는 세계의 끝에 이를 수 없고, 세계의 끝에 이르지 못하면 괴로움[苦]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의 끝은 분명히 있으나 오직 바른 지혜를 가진 자만이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으니, 그 지혜로 세간(世間)을 통달하면 피안(彼岸)에 이를 수 있다.

〈 보 기 〉

ㄱ. 우주의 삼라만상은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ㄴ. 윤회하는 한 끊임없이 새로운 생(生)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
ㄷ. 일체는 불변하므로 공(空)하며 누구나 불성(佛性)을 갖는다.
ㄹ. 무명(無明) 상태에서는 상호의존관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❹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9.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한울님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니, 한울님인 사람이 천지의 결실인 밥을 먹는 것은 곧 한울님이 한울님을 먹는 것입니다. 밥이 곧 하늘입니다.
> 을: 이웃이 정을 담아 주는 음식이 맛없다고 내색하면 원한을 쌓게 됩니다. 원한은 풀고[解寃] 은혜는 갚아야 하는 법, 반 그릇의 밥을 얻어먹더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병: 길가의 한 그루 소나무가 아름답다고 자기 집에 옮겨 심을 필요가 없으니, 만물은 모두 하나의 원(圓)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이 곧 우주입니다.

① 갑은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자연 애호와 만민 평등을 강조하였다.

② 을은 무속 신앙 및 유교, 불교, 도교까지 아우르는 사상을 제시하였다.

③ 병은 물질 개벽 시대를 이끌어갈 동양의 정신 개벽을 추구하였다.

❹ 갑은 을, 병과 달리 현세보다 내세의 지상낙원 실현을 역설하였다.

⑤ 갑, 을, 병은 민족의 주체성 회복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주장하였다.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ㄱ)~(ㅁ)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신(神)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며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병에서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주관적 진리이다.
> 을: 죽음은 세계 안의 존재인 현존재(Dasein)에게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며, 죽음에 내던져져 있다는 사실은 불안 속에서 더욱 철저하게 드러난다.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윤리를 따르는 삶으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으며, ㉡ 자신을 신에게 내맡기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을은 ㉢ 과학적 합리성으로 현존재의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예견해 봄으로써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의 보편적 본질보다는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하였다.

① (ㄱ)

② (ㄴ)

❸ (ㄷ)

④ (ㄹ)

⑤ (ㅁ)